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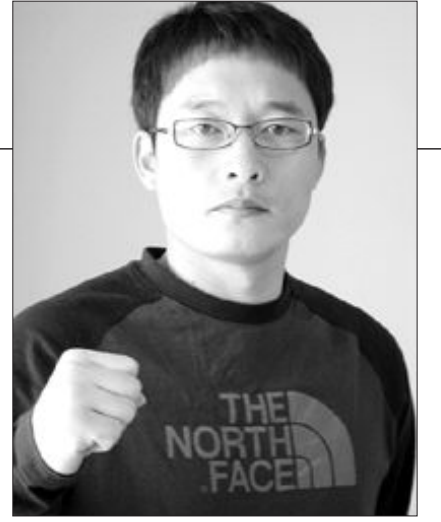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5 “우리도 뛰다”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와 직원들이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협회 사무실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배구대회 치평초 우승 이끈 정 원 재 감독

“애들이 자랑스러워요 체전 등을 5관왕 도전”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세를 몰아 오는 5월 광주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서 반드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시 동흥체육관에서 끝난 ‘제8회 칠십리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에서 창단 2년만에 우승을 일군 광주 치평초등학교 여자배구팀 정원재(30)감독은 우승비결에 대해 “전국 최정상급 선수들 기량과 학부모·학교·시교육청의 지원이 어우러져 빛을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5학년이 주축이 된 치평초등학교 김혜원·강혜수(레프트), 이가연(세터), 서보영(리베로), 이수경·나혜영·김예지

(라이트) 등은 이번대회 5게임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로 우승해 배구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치평초등학교는 지난 2005년 12월 학교 교기인 배구 활성화와 기초체력 향상을 목표로 배구 공 한번 잡아보지 못한 5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팀을 창단했다. 이후 2006년 4월 키가 크고, 달리기 등 기초체력을 갖춘 선수들을 선발하고 정상진(61)코치가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이후 2년만에 치평초등학교 여자배구팀은 전국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 감독은 “승원여중 등 전국 유명 중·

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했던 정상진 코치의 기술적 조언이 2년만에 배구 문외한이었던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평균 165cm로 다른 팀에 비해 월등한 신장을 바탕으로 조직력의 배구를 펼치는 치평초등은 올 시즌 전국소년체전 등에서 전국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감독은 “아이들이 모두 착하고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올 시즌 7개 대회 전부 출전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으면 소년체전을 비롯한 5개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감동의 ‘말아톤’...도전은 계속된다

■ 광주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방법을 늘려겠습니다.”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前 광주정신지체인애호협회) 장애우와 직원 등 20명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장애 극복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이들은 1~3급 지적장애우를 발달장애, 정서장애, 자폐와 중복장애를 앓고 있다.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마라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과잉행동장애(자폐증)’를 앓고 있는 양현석(23)씨가 영화 ‘말아톤’을 보고 난 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

발달장애 등 1~3급 20명 출전

노미향 사무국장(여·46)은 양씨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사무실에 러닝머신을 설치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매일 꾸준히 달린다 보니 체력 단련은 물론 정신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양씨와 함께하는 이들이 점차 늘었다.

훈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양씨 등 지적 장애우 6명은 3년 전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마라톤에 입문해 5km를 모두 완주했다. 이제는 마라톤 대회에 10여 차례 출전한 경험을 가진 중급 이상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 조절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우들을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함께 뛰면서 든든한 힘이 되어준 협회

직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대회에서는 양현석씨 외에도 한성주(18)군이 10km 완주 경험을 바탕으로 하프 코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영심(여·38), 이미선(여·42), 조광순(여·48)씨 등 지적장애우 가운데 3명도 5km에 출전해 비장애우들과 한 길을 달리게 된다.

자폐증 양현석씨 영화 보고 달리기 시작

이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건강을 다지는 것은 물론, 지적 장애우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지적장애’로 변경되는 등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노 사무국장은 “2008년도에 지적장애우의 최소한의 안전과 삶의 질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3·1절 마라톤 대회까지 이를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광주지적장애우에서 시행 실시하고 있는 지적 장애우의 인권보호와 대치를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노 사무국장은 “마라톤에 소질을 보이는 현석이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보는 게 꿈이지만, 그 꿈은 내년으로 미뤄졌다”면서도 “3·1절 마라톤 대회로 맺어진 마라톤과의 인연을 더 많은 지적 장애우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싶은 꿈은 점차 희망으로 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노보드 짜릿한 점프

6일 강원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16회 KSBA 프로 스노보드 선수권대회 하프파이프(Half Pipe) 종목에서 한 선수가 멋진 점프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사키 킷은 반칙”

추성훈 문제 제기

재일교포 격투기 스타 추성훈(33·일본명 아키야마 요시히로)이 지난 달 프라이드 마지막 대회 ‘아레노카! 오미소카’에서 자신에게 KO 패를 안겼던 미사키 가즈오(32·일본)의 킷은 반칙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일간 산케이스포츠는 16일 양 손과 무릎이 그라운드에 닿고 있던 상황에서 사커킷(쓰러진 상대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것)을 가하는 것은 반칙으로, 미사키의 킷이 이에 해당한다며 추성훈 측이 항의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항의문을 접수한 아레노카대회 실행위원회는 곧 정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태권도 원형경기장서 치른다

태권도협회 개정안 의결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라는 오명을 얻은 국기(國技) 태권도가 명예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5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일부 경기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어떻게 하면 태권도 경기를 재미있게

치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태권도협회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일부 대회에 원형경기장과 차등점수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인조와 5인조 단체전 도입 등 ‘깜짝 쇼’를 펼친 실업연맹의 시도를 결심한 것이다. 실업연맹은 받아차기 위주의 수비 지향적이고 단조로운 경기운영을 지양하고 고난도 기술을 유도하기 위해 원형경기장과 차등점수제, 10초를 등을 시범 적용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17일(목)
▲2008 PGA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1R(05:00·SBS스포츠·SBS골프)
▲07/08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금호생명)(16:50·SBS스포츠)
▲07/08 V리그 남파부(삼성화재 : 상무)(18:30·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SK : KT&G)(18:50·XSPORTS·SBS스포츠)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우리나눔오티콘보정기 동구 남동 남동생명과 전대병원 오거리 작은소속속에는사회상생의 밑거름이 꼭꼭하게 들리지 않는분 ☎(062)228-6006	천상등자 중흥동 효동 초등학교 옆 일련로 사주궁합, 신수택일 (현으로 봅니다) ☎(011)609-9723	두리철학원 서구 광안동 광안리 파출소와 생활영원 사이 직명, 사업, 직업, 이사, 결혼 승진, 재물, 궁합상담 ☎(062)368-4512	대성카센세차 북구 양산동 양산백지리 LG이대@ 근저 경정비, 오일교체,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용품, 코팅, 광택, 손세차 ☎(062)572-3267	귀향정 북구 풍향동 백림호텔옆 공의맛, 해물사면, 생선조림, 한식요리 대표 문근순 ☎(062)522-2743	관광호텔커피숍 수기동 구(현)대극장1층 커피, 맥주, 양주전문 아늑한 분위기 ☎(062)225-7991	
영지철학원 동구 학동 전대병원 맞은편 학동역과 북동역 사주, 관상, 승진, 궁합, 건강, 심리를 현명 합니다 원장 문상근 ☎(062)227-8235	빛고을황태마을 서구 중앙동 910-6 농협근처 옛 해초오리 형태, 전골, 구이, 해장, 갈치, 조림 전문 원장 류세업 ☎(062)655-5295	킹링크충전천국 북구 두원동 대우빌딩 1층 맞은편 링크, 토너, 충전, 컴퓨터 A/S 전문 원장 최관삼 ☎(062)251-1714	광주브루어리 동구 산수동 두원타운 입구 삼거리 전복요리 전문점, 독일식 정통맥주 단체모임, 피로회복, 각종모임, 단체행영 ☎(062)251-4525	호남부동산 북구 중흥동 672-5 APT, 토지, 임야, 부동산의 모든 것 상담행영 대표 임병만 ☎(062)527-4769	아이은음악학원 양산동 양산지구 광안역 건너편 명성빌딩 피아노, 플루트, 드럼, 신디시어저 대표 윤정희 ☎(062)573-3346	문흥골세꼬시·할어 문흥동 문흥파출소 위 산지직송, 자연산 전문 ☎(062)264-6611	정든전복가든 혹석동 청정 주유소 옆 전복찜, 전복구이, 전복사탕, 사탕 전복사시미, 전복초밥, 생대탕, 전복삼계탕 ☎(062)951-8959
무안세꼬시 봉선동(소방서) 옆 무동1차 상가 자연산 할어 전문점 대표 문길봉 ☎(062)655-6891	까반느 서구 중앙동 1018-1 풍자구 저지 맞은편 원장 서석근 ☎(062)682-4503	범무사정혼연사무소 동구 지산동 범일 후문 옆 동기, 법인설립, 개인회생, 피산 가사, 호적, 기입류, 가처분 ☎(062)232-3002	유창사 중흥동 한국 회갑집 옆 대표 양여진 ☎(062)524-0350	운남생활용품 광안동 운남동 786-3 급구농협 앞 생활용품, 주방용품, 문구, 아동도자기, 공예사제 대표 임병만 ☎(062)431-0659	윤가네생선집 광안동 월곡동 546-4 허남농협 뒤 생선잡, 향정생선, 명품목어, 전골 전문 대표 윤정희 ☎(062)962-5583	동화세탁소 문흥동 라인@1층 수거배달, 옷수선 ☎(062)267-6432	청강한뜸연구원 화정동 구(현)소년원 정문 옆 4대째 이어온 전통 조식침묵을 잇기 위한 개인 교습생 모집(7개월 과정) ☎010-8338-2572
한솔회관 문흥동 광명@후문 셋터코아 사거리 단체모임, 예약행영, 생선조림 전문점 대표 고주석 ☎(062)264-2059	황수안플라워 서구 능성동 315 전 도시사 관사 옆 축하, 근초, 생선, 생선, 생선, 생선 서비스 원장 임주열 ☎(062)366-4545	행정사김중욱 동구 지산동 범일 앞 법률 무료상담 ☎(062)225-3053	관광호텔커피숍 동구 수기동 현대빌딩 옆 서울대병원 맞은편 커피숍, 맥주, 양주 대표 김희정 ☎(062)225-7991	소리바다음악학원 북구 양산동 용두주공@ 후문 앞 2층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기타 등 대표 추미숙 ☎(062)571-7715	옛날손짜장 대인동 롯데백화점 후문 손짜장, 간짜장, 삼선짜장, 향수육, 시판향수육 대표 박영명 ☎(062)232-0036	Violet포크아트 서구 중앙동 풍림고점맞은편 공예(리플랜트), 수공예, 조각(목, 돌) 인테리어 소품 판매 ☎(062)652-7847	에덴다방 대인동 소방서 사거리 새로운 커피숍, 수거배달 대표 김계숙 ☎(062)224-5233